

4차시

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?

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 따돌림 및 사생활 침해 사례와 문제점을 이해하고, 이를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.

Q1

나는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들이 다른 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욕설을 듣는 친구가 화가 나겠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친구들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. 이런 저의 판단은 괜찮을까요?

A1 X

설명 : 사이버 따돌림을 멈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. 조력자가 된다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과 타인의 괴로움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 경우에 분명하게 단체 채팅방에서 한 명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알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

Q2

친구가 자면서 침을 흘리고 있어서 놀려주려고 몰래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 영상을 내 SNS에 공유하며 '#잠자는미인'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였습니다. 해시태그의 내용이 나쁜 말이 아니니 괜찮지 않을까요?

A2 X

설명 : 친구가 자고 있는 상황이니 친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을 찍은 것입니다. 허락 없이 타인을 찍어서는 안 되고, 이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해서도 안 됩니다. 내가 좋은 의미의 태그를 붙였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동영상상을 이용할지, 어디까지 퍼질지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.

Q3

다른 사람의 물리적, 신체적, 언어적, 정서적 개인 영역을 존중하고 타인의 휴대폰 정보를 보려고 하거나, 친밀함의 표현으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등 타인의 물리적, 신체적, 언어적, 정서적 개인 영역을 존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은 무엇이라고 할까요?

A3 경계존중

설명 : 경계 존중은 나와 타인의 신체적, 심리적 경계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.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아는 것만큼이나 남의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